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 일시 : 2007년 7월 4일(수), 14:30 ~ 17:3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14:30 ~ 15:00	등 록	
15:00 ~ 15:10	개 회 사	이 옥(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사회: 장명림(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15:10 ~ 15:50	주 제 발 표	보 육 시 설 특 별 활 동 운 영 실 태 이미화(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15:50 ~ 16:50	지 정 토 론	김영옥(전남대학교 교수) 정대련(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기숙(이화어린이연구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항윤옥(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16:50 ~ 17:30	자 유 토 론 및 질 의 응 답	
17:30	폐 회	

차 례

주제발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4
II. 특별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8
1. 특별활동의 근거	8
2. 특별활동의 개념 정의	10
3. 선행연구 고찰	11
III.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 현황	18
1. 특별활동 내용	18
2. 특별활동 운영 형태	22
3. 특별활동 실시 이유	30
4. 특별활동 비용	32
토 론	
김영옥(전남대학교 교수)	41
정대련(동덕여자대학교 교수)	52
이기숙(이화어린이연구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63
황윤옥(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72

주제 발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 보고

이 미 화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6월 현재, 전국의 2만 9천 여 개의 보육시설에서 백 만 명이 넘는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제각기 다른 보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표준보육과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6년 「표준보육과정」이 여성가족부령으로 공포되고, 2007년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사지침’이 고시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시설 영유아의 보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이며, 보육시설에서 운영해야 할 보편적 보육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은 보육시설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만 6세미만의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하고 적합한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며,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돌보고 어떤 경험과 학습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교사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보육과정의 운영을 수요자의 선택과 요구에 의존해 온 보육시설이 많으며, 보육과정의 부재는 보육의 질을 낮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특히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 개개인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보다는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데 주력한 특별활동을 여과 없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보육이 무엇인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을 경험한 우리 미래인적자원이 될 영유아들이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특별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특별활동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는 첫째, 특별활동의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둘째, 선택권, 발달권, 놀 권리 등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셋째,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상업성을 띠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산물이며, 넷째, 특별활동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우남희, 2004; 이영환, 2003; 이정화 외, 2003; 김영명, 서영숙, 2006).

특별활동의 실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과 보육현장의 입장 차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과 수요자의 입장 차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충분한 인적 자원의 배치 등 특별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많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2007년도 현재 전국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한 결과를 보육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내용: 실시 여부, 종류, 내용, 연령별 참여
- 특별활동의 운영 형태: 의무와 선택, 담당자, 시간, 장소, 학원 연계
- 특별활동 실시 이유
- 특별활동 비용: 비용 수납방법, 연령별·활동별 비용, 교재비

3.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보육시설 1,003개소이다. 전국의 보육시설을 설립유형별, 소재지역별로 10%를 유층 무선 표집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약 34%(전체보육시설의 3%)의 응답을 받았다. 연구대상의 시설유형, 소재지역, 시설규모는 <표 1-1>과 같다.

<표 1-1> 시설유형별 · 소재지역별 · 시설규모별 조사대상

단위: %(개소)

구분	조사대상	여성가족부 보육통계(2007.6)
전체	100.0(1003)	100.0(29,233)
설립유형		
국공립	6.7(67)	5.6(1,643)
법인	7.0(70)	5.0(1,475)
부모협동	0.1(1)	0.2(59)
개인민간	43.1(432)	45.9(13,430)
직장	1.2(12)	1.0(296)
가정	42.0(421)	39.8(11,626)
소재지역		
대도시	38.3(384)	41.5(12,122)
중소도시	54.1(543)	45.3(13,255)
읍면지역	7.6(76)	13.2(3,856)
시설규모		
20인 이하	46.5(466)	41.4(12,115)
21인 ~39인	22.5(226)	26.6(7,789)
40인 ~65인	14.7(147)	12.0(3,507)
66인 이상	16.4(164)	19.9(5,822)

<표 1-1>에 나타난 것처럼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시설이 67(6.7%), 법인시설이 70(7.0%), 부모협동시설이 1(0.1%), 개인민간시설이 432(43.1%), 직장시설이 12(1.2%), 가정시설이 421개소(42.0%)이다. 소재지역으로 보면, 대도시 384(38.3%), 중소도시 543(54.1%), 읍면지역 76개소(7.6%)이다. 시설규모로 보면 20인 이하 시설이 466(46.5%), 21인 이상 39인 이하 시설이 226(22.5%), 40인 이상 65인 이하 시설이 147(14.7%), 66인 이상 시설이 164(16.4%)개소이다. 이를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비율과 비교해 보면, 설립유형으로는 개인민간시설, 소재지역으로는 읍면지역, 시설규모로는 21인 이상 39인 이하의 보육시설에서의 응답률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대상 시설들의 보육 영유아 수는 <표 1-2>와 같다.

<표 1-2> 보육 영유아 현원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현원	연령별 평균현원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만 0세	471	3.5(1,285)	2.7	4.7(46,351)
만 1세	784	10.0(3,685)	4.7	10.4(102,473)
만 2세	947	21.8(8,028)	8.5	20.3(201,111)
만 3세	756	24.6(9,052)	12.0	22.4(221,529)
만 4세	582	21.4(7,891)	13.6	22.2(219,974)
만 5세	490	18.8(6,924)	14.1	20.0(198,631)
총 영유아	1,003	100.0(36,865)	36.8	100.0(990,069)

* 만6세 이상(50,292명) 제외

<표 1-2>에 나타난 것처럼 연구대상 시설에 채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모두 36,865명이며, 만 3세 유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만 2세, 만 4세, 만 5세, 만 1세, 만 0세 순이었다. 보육시설당 평균 36.8명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보육시설 평균 현원수인 35.6명보다 조금 많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나.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자들이 작성하고 영유아보육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설문은 보육시설의 일반현황과 특별활동 실시 현황에 관한 2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설문지 구성

구분	질문 내용
일반현황	보육시설명 / 주소 / 연락처
	시설유형
	소재지역
	영유아 현원
특별활동 실시 현황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유무 / 특별활동 실시 종류 수 / 선택여부
	특별활동 실시 내용 / 대상 / 참가수
	특별활동 참가비용 / 수납방법/ 수납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부모대표)와 의 심의 여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 담당자 / 장소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 / 도움이 되는 정도
	외부 학원 등에서 하는 특별활동 소개 여부 / 소개 이유

다. 연구절차

설문조사는 전문 전화조사팀을 두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사전에 조사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화조사를 하는 동안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조사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 등을 협의하며 진행하였다. 전화조사는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 전국 보육시설에서 10% 유충 무선 표집한 2,973개의 시설 명단을 가지고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1,003개 보육시설의 설문조사 응답 내용 모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라.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Window용)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시설의 기본배경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설문지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에서 시설유형, 소재지역, 시설 규모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Ⅱ. 특별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특별활동의 근거

보육시설에서는 관례적으로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사업 안내」 등 보육 관련 문서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의 보육비용 관련 규정에서 특별활동에 대해 언급된 곳을 찾을 수 있다. 보육규정 관련 문서 중 보육비용에 대한 규정 부분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보육비용 관련 규정

영유아 보육법	제 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제 12조 내지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07년 보육사업 안내	<p>1. 보육료 등 결정</p> <p>1) 시·도지사 :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한다.</p> <p>2)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각 시설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3) 시설장 :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아래의 사항을 보육시설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2007년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특별)활동 의 정의 :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나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인 요청(동의서 청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 경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한다.

「2007년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서 보육료 및 기타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에서 ‘특기(특별)활동비’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으며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인 요청(동의서 청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현장 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 경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함’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한편 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시행계획」에서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하여 금지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 2-2>와 같다.

<표 2-2> 유치원의 특별활동 금지 내용

유아교육법
<p>제13조 (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유아교육시행계획></p> <p>- 2005년도까지 나왔고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지님</p>
<p>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중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내용(2005년)</p>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성교육 및 창의성 개발 등 전인 교육 정착 - 국가교시 유치원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교육과정운영지침 준수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 운영 · 교육부 개발·보급 유아교육자료 적극 활용

-
-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철저
 -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을 근절토록 지도·감독 철저
 - 영어지도, 학습지 활용, 유치원 일과 중 기능교육 등
 - 종일반 프로그램: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언어, 수·과학, 미술, 음악 등) 내용을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운영
-

2. 특별활동의 개념 정의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활동으로, 제 7차 초등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을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교육부, 1997). 일반적으로 특별활동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과학습 이외의 학교교육활동, 즉 학생의 개성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수기능, 그리고 민주적 생활태도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클럽 활동, 학교행사 등을 통해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된다(이경화, 함수곤, 1998; 허명순, 2007, 재인용).

초중등 특별활동의 교육과정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개 영역이며(교육부, 1997),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통해 교과활동에서 얻을 수 없는 기능과 태도와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국립교육평가원, 1997).

교육과정이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초중등학교 특별활동의 정의와 성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은 특별활동, 특기교육, 조기특기교육, 시간연장제 프로그램, 방과 후 특별활동 등 여러 유사한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김기연, 2005),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 <표 2-3>은 연구자별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정의이다.

<표 2-3>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

연구자	정의
이선정(2003)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시간이나 그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정 교구교육, 개인 소집단 과외교육, 특기교육, 방문(강사)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업시간, 방과 후 활동 시간, 그리고 별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특기를 신장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
김법정(2004)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주 1~2회, 혹은 3~4회씩 정기적으로 외래강사나 특별채용교사를 통하여 영어, 미술, 체육 등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윤기영, 권미영(2004)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소질계발을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반적인 유치원의 일상생활을 보다 심화 확장하는 활동으로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허명순(2007)	유아의 전인발달과 소질 계발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일상생활을 심화 확장하는 활동으로 유아의 요구와 흥미, 개성, 그리고 자율성에 무게를 둔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 중심의 체험활동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을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표준 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며, ‘비용을 별도로 수납하거나, 보육교사 이외의 별도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로 제한한 협의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선행 연구 고찰

지금까지 이루어진 특별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과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가.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1) 부모의 인식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한 마디로 찬성하는 쪽이라 할 수 있다.

허명순(2007)은 부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의 현황과 만족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부모의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특별활동의 종류, 교육내용, 교육수준, 강사, 자질, 수업료, 자녀의 흥미, 교육효과별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특별활동에 대한 자녀의 흥미를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별활동의 운영방식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이 보다 세분화되고 교과별로의 심화과정을 편성하여 운영되며 특별활동이 정규교육을 보충하고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으로 특별활동의 무상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의 교육내용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특별활동을 통해 자녀의 잠재능력이 계발되고, 장래 전문성을 위한 기초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이 다져지는 것이었으며, 초등학교 정규수업과 연계되고 학습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사회계층수준이 낮을수록 한글 교육수준에 대해 높게 요구하고 있었다. 특별활동의 교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창의적 놀이 위주이면서 가급적 전공 교사가 교육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담당교사와 상담을 하고, 교재를 통해 수업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것이었다.

김법정(2004)은 서울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실태와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유아교육기관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치원 선정 시 특별활동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이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며, 학원으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안정성 때문이다. 부모들은 특별활동으로 영어, 체육, 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규 수업 중 2-3가지 활동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 특별활동 운영의 목적을 '유아들의 재능 및 소질 개발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은 특별활동 운영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흥미 증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은 '유아 개개인의 발달수준이나 흥미가 고려되지 않아 유아가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외래강사에 대해 좋은 점은 '담당

활동을 전공하였거나 담당 활동에 소정의 훈련을 받아 전문가로서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며, 문제점은 '유아 개개인의 발달 상태 및 흥미와 요구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인식하였다. 부모들은 유치원 특별활동이 '유치원 정규 교육을 보충 및 확장해 줄 수 있는 방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의 개선점으로 유아 개개인의 발달,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특별활동의 교육 내용이나 유아들의 성취도나 평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특별활동의 유무가 기관 선택의 조건이 되기도 하며, 기관의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또한 부모들은 특별활동에 대해서 유아 개개인의 발달,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수업, 특별활동의 교육 내용이나 유아들의 성취도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정규교육을 보충하고 확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 초등학교 정규수업과 연계되고 학습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2) 교사의 인식

특별활동 실시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이 유아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이명조 외, 2003).

한편 교사는 특별활동에서 담당교사의 자질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아가 느끼는 과중한 스트레스, 수업준비 시간 부족, 비용 부담 관련 전문가를 찾기 어려움, 유치원 교육활동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이기숙 외, 2002)

3) 기관장의 인식

유아교육기관의 기관장은 유아가 특별활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증가되지 않으며, 특별활동을 받는 유아가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활동이 유아의 인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의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이정화, 정선아, 2004). 실제로 원장들은 특별활동을 한 유아가 학습요령을 더 잘 습득하고 선행학습으로 인해 자신감을 받는 부분은 많으나, 학습의 자율성을 떨어뜨리

며 과도한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나친 주위의식이나 자기과시 경향이 보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다(우남희 외, 2005).

유아교육기관 기관장들에게 특별활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이정화, 정선화, 2004). 첫째,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진정한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다양한 맛보기에 그치고 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셋째, 특별활동은 그 효과를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반면 유아교육기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놀이 중심 혹은 통합교육의 의미에 대해 갈등한다.

4) 유아의 인식

교사나 부모의 시선에서 보면 유아들은 대부분 특별활동을 흥미 있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옥승 외, 2001; 오효선, 2001; 이선정, 2003). 한편 특별활동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직접 조사한 연구(이명조 외, 2003)는 유아에게 특별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워야만 하는 교과활동이다. 둘째,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한 활동이다. 셋째,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수단이다. 넷째, 정규일과 수업과 다르다. 유아들은 특별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정규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내용을 접함으로써 흥미를 느끼며, 특별활동 교사의 유머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외적 보상을 사용하는 교수방식, 무엇인가를 좀 더 잘하게 된 것 등이 유아들이 특별활동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반면에 개개인의 요구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특별활동 강사가 강압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유아들은 특별활동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특별활동이 재미없고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공부로 생각하고 있고, 재미없는 특별활동 시간을 참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나. 특별활동 운영 현황

1) 특별활동 내용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이미화 외, 2005)에 의하면, 특별활동은 보육시설의 69.7%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유료로 실시하는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외국어(24.5%), 미술(10.3%), 과학(9.4%), 체육(8.2%), 교구이용(7.6%) 프로그램 등의 순으

로 많이 나타났다. 유료로 실시하는 특별활동의 종류로는 1개를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1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개(14.8%), 3개(9.6%) 순으로 나타나 1-3개를 실시 중인 보육시설이 대부분이었다(43.2%). 특별활동과 별도로 조사한 학습지는 보육시설은 44.9%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현원의 27.2%가 학습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희 등(2002)의 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74.6%가 1가지 이상의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가지 이상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20.2%로 가장 많고 3가지를 실시하는 경우는 18.2%였고, 6개 이상을 하는 경우도 5.7%가 있었다. 보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하는 특별활동은 영어교육으로 과반수이상인 58.2%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그리기(38.2%), 피아노(25.0%), 유아체조(20.6%), 만들기 (19.9%), 국악(13.7%), 컴퓨터(11.7%), 태권도(10.2%), 바이올린(5.6%) 등의 순이다.

허명순(2007)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만 5세 유아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이 영어, 한자, 한글, 수학 등 교과중심의 지적 교육 위주이며, 예체능 분야에서는 체육, 수영, 미술 순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기숙 등(2002)의 조사에서는 전국 유치원 1116곳 중 약 90%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3-4가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제일 많다고 보고하였다. 특별활동의 내용으로는 영어(64.3%), 미술(50.9%), 체육(48.1%), 악기연주(39.2%), 종이접기(22.5%), 컴퓨터(18.7%), 과학(17.6%), 학습지(15.9%), 동화구연(12.7%), 수영(9.1%) 순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법정(2004)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중 실시하는 특별활동의 종류 중 영어를 가장 많이 실시(87.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미술, 생활체육, 국악, 학습지, 컴퓨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기영 등(2004)은 교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전통문화 및 체험활동, 자연체험, 요리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책 만들기 활동, 토의활동, 종이접기, 바느질 놀이 순이며, 교사들이 운영하고 싶은 유치원 특별활동은 자연체험, 각종 놀이 활동, 노작 활동, 미술, 음악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많은 보육 시설과 유치원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영어 등의 외국어였고, 그 다음은 미술, 체육, 음악 등 예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별활동 방법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이미화 외, 2005)에 의하면 보육시설 중 53.4%가 특별활동 비용을 받고 실시하고 있었으며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16.3%였다.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시간대는 오후 보육시간 중(35.8%), 오전 보육시간 중(32.8%), 오전·오후 보육시간 중(30.3%)이었으며 유료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유아 1인당 평균 참가비용은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25,330원으로 가장 높고,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10,42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수납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육시설은 15.0%에 불과했다. 학습지를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월 1인당 학습지 수납액은 평균 7,630원으로 나타났다.

이기숙 등(2002)은 유치원의 특별활동 실시 형태는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특별활동의 담당자는 외부 강사가 71.4%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구성은 대체적으로 대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별활동 비용은 정규수업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에서, 방과 후에 하는 활동은 부모가 부담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와는 별도로 특별활동비를 부과한다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영 등(2004)은 특별활동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으로, 첫째, 교사 부모 지역사회 협조체제로 이루어지는 것, 둘째, 아동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셋째, 교육과정에 부합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 넷째, 소집단으로 운영하는 것, 다섯째, 과정중심으로 하는 것, 여섯째, 교사들의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 것, 일곱째,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3) 특별활동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명 등(2006)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으로 특별활동의 발달 적합성,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와 사회·문화 적합성을 논하였다. 그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이 전체 일과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교사 주도의 학습방식으로 진행되고, 특별활동 전담교사가 담임교사와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활동이 통합적인 교육·보육 과정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미화 등(2005)은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읽기·쓰기가 곧 초등학교 준비라고 생각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보육

프로그램은 영유아들의 조화로운 전인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보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통합적 보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민간보육 시설은 원아모집 때문에 학부모의 요구와 압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보육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기교육이나 특기교육에 치중하는 교육방식들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보육종사자들도 스스로 바람직한 보육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기숙 등(2002)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 중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이 부모들이 원하고 원아모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교사들이 특별활동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이 유아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유아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 다음으로 유아들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것,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 관련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 유치원 교육활동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순이었다.

윤기영 등(2004)은 특별활동 운영의 문제점으로 학부모의 인식, 교수자료나 프로그램 부족, 행·재정적 지원 부족, 교사의 전문성 결여, 시설설비 미비,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특별활동의 명확한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 둘째, 부모교육을 통한 인식변화, 셋째, 교사 연수, 넷째, 재정지원, 다섯째, 프로그램 보급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정화 외(2003)는 유치원 특별활동 과열 양상의 문제로 첫째, 유아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규일과를 침해한다는 것, 통합교육을 저해한다는 것, 넷째, 유아교사들의 효능감을 저하시킨다는 것, 다섯째, ‘특별활동 전담교사’=‘특별활동 전문가’라는 유치원 원장, 교사, 부모의 잘못된 인식이 유치원의 외래강사 활용을 부추킨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별활동은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특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많은 특별활동들이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전문가보다는 특정 영역의 전담 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전체 일과와 독립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통합적인 보육·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부모교육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 현황

1. 특별활동 내용

가. 특별활동 실시여부와 비용 유무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여부와 비용유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연구대상 시설 중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95.4%,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곳은 4.6%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육시설 중 53.0%만 특별활동을 위하여 특별활동비나 교재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어 특별활동의 개념을 협의로 보았을 때 보육시설의 절반 정도에서 별도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을 실시한다고 할 수 있다. 설립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에서만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소재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유료로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유료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1>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여부와 비용유무

단위: %(개소)

구분	실시함		실시안함	합계
	유료	무료		
전체	53.0(532)	42.4(425)	4.6(46)	100.0(1,003)
설립유형				
국공립	72.7(48)	22.7(15)	4.5(3)	100.0(66)
법인	62.9(44)	35.7(25)	1.4(1)	100.0(70)
부모협동	-	-	100.0(1)	100.0(1)
개인민간	63.0(272)	35.0(151)	2.1(9)	100.0(432)
직장	50.0(6)	50.0(6)	-	100.0(12)
가정	38.4(162)	54.0(228)	7.6(32)	100.0(422)
소재지역				
대도시	59.3(227)	35.2(135)	5.5(21)	100.0(383)
중소도시	48.2(262)	47.8(260)	4.0(22)	100.0(544)
읍면지역	56.6(43)	39.5(30)	3.9(3)	100.0(76)

시설규모				
20인 이하	38.4(179)	53.9(251)	7.7(36)	100.0(466)
21인 ~ 39인	60.2(136)	37.2(84)	2.7(6)	100.0(226)
40인 ~ 65인	68.7(101)	29.9(44)	1.4(2)	100.0(147)
66인 이상	70.7(116)	28.0(46)	1.2(2)	100.0(164)

한편 특별활동을 유료로 실시할 경우 교재비와 활동비 수납의 유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1-1>과 같다. 교재비와 활동비를 모두 받는 시설은 23.7%였으며, 교재비 없이 활동비만 받는 시설은 67.7%, 활동비 없이 교재비만 받는 시설은 8.6%였다.

<표 3-1-1> 유료일 경우 교재비와 활동비 유무

구분	유료			합계
	교재비와 활동비 수납	활동비만 수납	교재비만 수납	
	전체	23.7(126)	67.7(360)	

단위: %(개소)

나. 특별활동 실시 종류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그 종류의 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특별활동 종류의 수는 1가지를 실시하는 시설부터 10가지를 실시하는 시설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 2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2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가지, 4가지, 1가지, 5가지 순이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직장, 가정 시설은 2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았으나. 법인과 개인민간시설은 3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역별로는 대도시는 3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2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시설규모별로는 20인 이하의 시설이 2가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21인 이상의 시설은 3가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3-2> 실시하는 특별활동 개수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활동 수							합계
	1	2	3	4	5	6	7개 이상	
전체	14.1	27.7	26.4	14.7	9.6	3.9	3.6	100.0(959)
설립유형								
국공립	3.1	34.4	32.8	21.9	4.7	1.6	1.6	100.0(64)
법인	13.0	27.5	30.4	14.5	5.8	5.8	2.8	100.0(69)
부모협동	-	-	-	-	-	-	-	-
개인민간	6.9	21.0	26.7	17.7	13.2	7.3	7.1	100.0(423)
직장	-	58.3	33.3	-	8.3	-	-	100.0(12)
가정	24.3	33.0	24.0	10.7	7.2	0.3	0.6	100.0(391)
소재지역								
대도시	12.7	25.3	29.8	11.8	11.0	4.7	4.7	100.0(363)
중소도시	15.1	28.9	23.5	16.8	9.0	3.6	3.1	100.0(523)
읍면지역	13.7	31.5	30.1	13.7	6.8	1.4	1.4	100.0(73)
시설규모								
20인 이하	23.1	31.5	25.5	11.6	6.7	1.2	0.2	100.0(432)
21인~ 39인	5.9	26.4	26.8	20.0	11.4	5.0	4.5	100.0(220)
40인~ 65인	9.0	22.1	26.9	17.9	13.1	6.2	4.9	100.0(145)
66인 이상	5.6	24.7	27.8	13.0	11.7	7.4	9.9	100.0(162)

한편,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 개수의 평균은 <표 3-3>과 같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1개에서 10개까지 특별활동을 실시하며, 평균적으로 3개 정도($SD=1.63$)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개수는 시설 유형($F_{(4,951)}=30.88, p<.001$)과 시설규모($F_{(4,951)}=33.37,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떤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 시설 유형별로는 개인민간 시설이 법인 시설과 가정 시설에 비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가 의미있게 많았으며, 시설 규모별로는 20인 이하의 시설이 20인 이상 시설에 비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가 의미있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

단위: 개소, 개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956	3.08	1.63	10	1
설립유형					
국공립	63	3.05	1.20	8	1
법인	69	3.03 ^a	1.52	8	1
부모협동	-	-	-	-	-
개인민간	423	3.66 ^b	1.79	10	1
직장	12	2.58	0.90	5	2
가정	389	2.47 ^a	1.27	10	1
F(df)			30.88 ^{***} (4)		
소재지역					
대도시	362	3.19	1.65	9	1
중소도시	521	3.03	1.62	10	1
읍면지역	73	2.88	1.52	10	1
F(df)			1.67(2)		
시설규모					
20인 이하	429	3.40 ^a	1.56	9	1
21인 ~ 39인	220	3.40 ^b	1.56	9	1
40인 ~ 65인	145	3.46 ^b	1.66	9	1
66인 이상	162	3.73 ^b	1.98	10	1
F(df)			33.37 ^{***} (3)		

***p < .001

* a, b 다른 문자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다. 특별활동 종류별 내용

특별활동의 종류별 내용은 <표 3-4>와 같다. 특별활동의 종류는 크게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교구 이용, 기타의 9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 내용이 가장 적은 것은 과학과 수학 관련 프로그램으로 4가지였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은 교구 이용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이 무

려 19가지나 되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중 연구자들이 처음 들어본 것들도 상당수가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보육시설에서는 특별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 특별활동 종류별 내용

종류	내용	개수
미술 관련 프로그램	그리기, 만들기, 종이접기, 점토(칼라믹스 등), 플레이아트, 도자기 공예, 통합미술, NIE, 미술치료	9
음악 관련 프로그램	피아노, 바이올린, 국악(장구, 소고, 전래동요), 유아음악 일반, 유리드믹스, 리듬악기, 오르프, 킨더뮤직, 아마데우스, 핸드벨, 오카리나	11
체육 관련 프로그램	체육 일반, 태권도, 택견, 발레나 무용, 유아체조, 수영, 인라인, 댄스스포츠, 키즈요가, 단전호흡, 검도, 우리춤	12
과학 관련 프로그램	과학 실험,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 창의력 과학, 요리	4
수학 관련 프로그램	학습지, 수학교구, 놀이수학, 주산	4
한글 관련 프로그램	글짓기(논술), 학습지, 동화구연, 웅변, 한글 플래시 카드, 독서 지도, 말하기 지도, 보니또(독후표현활동)	8
외국어 관련 프로그램	영어, 일본어, 중국어	3
교구 이용 프로그램	프뢰벨, 오르다, 레고, 몬테소리, 가베(은물), 델타 샌드, 시찌다, 하바, 마그네, 버그박사, 물폰, 큐빅, 색도형, 피타고라스, 바오피스, 피아제, 도트카드놀이, 케이넥스, 도미노	19
기타	컴퓨터, 다도, 바둑, 한문, 예절, 전래놀이, 베이비마사지, 종교 수업(인성교육), 통합교과형 학습지, 북아트, 브레인 놀이, 팻찌아이, 프로젝트, 주말농장, 덩동땡(창의력), 발도르프, 비테교육, 아기탄생(글레도만), 호크마, 오감발달	20

2. 특별활동 운영 형태

가. 특별활동 선택방법

특별활동의 선택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전체적으로 선택보다는 의무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별활동 종류별로 보면, 컴퓨터 활동을 제외하고는 특별활동을 의무로 실시하는 비율이 선택으로 실시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5> 특별활동의 선택 여부

단위: %(개)

구분	선택	의무	합계
전체	35.3(1,041)	64.7(1,904)	100.0(2,945)
미술	34.5(100)	65.5(190)	100.0(290)
음악	34.6(102)	65.4(193)	100.0(295)
체육	33.3(167)	66.7(335)	100.0(502)
과학	35.9(52)	64.1(93)	100.0(145)
수학	44.0(22)	56.0(28)	100.0(50)
한글	37.7(49)	62.3(81)	100.0(130)
외국어	40.7(291)	59.3(424)	100.0(715)
교구이용	32.0(225)	68.0(478)	100.0(703)
기타	27.9(31)	72.1(80)	100.0(111)

특별활동의 연령별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어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교구 이용, 체육, 음악, 미술, 과학, 한글, 기타, 수학 순이었다. 수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프로그램이 0세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의 경우 교구 이용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한글 프로그램 순이었다. 만 1세의 경우 교구 이용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체육, 외국어, 미술, 음악, 한글 프로그램 순이었다. 만 2세의 경우 교구 이용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외국어, 체육, 미술, 음악, 한글, 과학, 수학 프로그램 순이었다. 만 3세의 경우 외국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구 이용, 체육, 미술, 음악, 과학, 한글, 수학, 컴퓨터 프로그램 순이었다. 만 4세와 5세의 경우 동일하게 외국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구 이용, 체육, 음악, 미술, 과학, 한글, 수학, 컴퓨터 프로그램 순이었다.

<표 3-6> 연령별 특별활동 실시비율

단위: %(개)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교구 이용	기타	합계
전체	9.8 (290)	10.0 (296)	17.1 (506)	4.9 (145)	1.7 (50)	4.5 (132)	24.3 (717)	23.9 (706)	3.8 (111)	100.0 (2,953)
연령										
만 0세	8.0 (9)	12.4 (14)	15.0 (17)	2.6 (3)	-	8.0 (9)	18.6 (21)	23.0 (26)	12.4 (14)	100.0 (113)
만 1세	11.6 (80)	9.2 (63)	20.1 (138)	1.9 (13)	3.5 (4)	3.9 (27)	17.6 (121)	31.0 (213)	4.1 (28)	100.0 (687)
만 2세	10.9 (196)	7.7 (139)	19.6 (352)	2.9 (53)	1.0 (18)	3.9 (70)	23.1 (416)	28.6 (514)	2.3 (42)	100.0 (1,800)
만 3세	10.1 (216)	8.7 (186)	18.0 (385)	5.2 (110)	1.4 (30)	3.7 (80)	26.5 (566)	23.5 (502)	2.8 (60)	100.0 (2,135)
만 4세	10.0 (192)	11.0 (213)	18.0 (348)	6.0 (115)	1.7 (32)	3.7 (71)	26.2 (506)	19.3 (372)	4.1 (80)	100.0 (1,929)
만 5세	9.6 (165)	12.4 (213)	17.8 (306)	6.0 (103)	1.9 (32)	3.7 (63)	25.9 (445)	18.3 (314)	4.6 (79)	100.0 (1,720)

나. 특별활동 담당자

특별활동 담당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7>과 같다. 특별활동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보육교사에 비해 외부 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활동의 종류별로 보면, 미술, 과학, 수학, 한글, 교구 이용 관련 활동은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음악, 체육, 외국어 관련 활동의 경우에는 별도 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보육교사의 담당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수학 관련 활동이었으며, 별도 강사의 담당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외국어 관련 활동이었다.

<표 3-7> 특별활동 담당자

단위: %(개)

구분	외부강사	보육교사	합계
전체	60.3(1,781)	39.7(1,171)	100.0(2,952)
미술	34.9(101)	65.1(188)	100.0(289)
음악	78.8(234)	21.2(63)	100.0(297)
체육	85.1(429)	14.9(75)	100.0(506)
과학	31.0(45)	69.0(100)	100.0(145)
수학	18.4(9)	81.6(40)	100.0(49)
한글	41.2(54)	58.8(77)	100.0(131)
외국어	89.0(638)	11.0(79)	100.0(717)
교구 이용	31.7(224)	68.3(482)	100.0(706)
기타	41.4(46)	58.6(65)	100.0(111)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실시하는 경우보다 별도 강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료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47.9%의 특별활동을 외부강사가 담당하였다. 유료로 실시하는 경우 수학 관련 프로그램에서 외부 강사 활용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과학, 한글, 교구 이용 관련 프로그램도 외부 강사 활용 비율이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료로 실시하는 경우 외국어 관련 프로그램에서 외부 강사 활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체육과 음악 관련 프로그램도 외부 강사 활용 비율이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7-1> 비용 유무에 따른 특별활동 담당자

단위: %(개)

구분	유료			무료		
	외부강사	보육교사	소계	외부강사	보육교사	소계
전체	68.2(1,236)	31.8(577)	100.0(1,813)	47.9(545)	52.1(592)	100.0(1,137)
미술	56.9(99)	43.1(75)	100.0(174)	22.8(26)	77.2(88)	100.0(114)
음악	82.4(159)	17.6(34)	100.0(193)	72.1(75)	27.9(29)	100.0(104)
체육	90.9(289)	9.1(29)	100.0(318)	75.3(140)	24.7(46)	100.0(186)
과학	31.1(32)	68.9(71)	100.0(103)	31.0(13)	69.0(29)	100.0(42)

수학	17.1(6)	82.9(29)	100.0(35)	21.4(3)	78.6(11)	100.0(14)
한글	43.6(34)	56.4(44)	100.0(78)	37.7(20)	62.3(33)	100.0(53)
외국어	93.5(432)	6.5(30)	100.0(462)	80.8(206)	19.2(49)	100.0(255)
교구 이용	45.5(176)	54.5(211)	100.0(387)	15.0(48)	85.0(271)	100.0(319)
기타	52.5(32)	47.5(29)	100.0(61)	28.6(14)	71.4(35)	100.0(49)

다. 특별활동 실시시간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특별활동을 오전 보육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45.1 %로 가장 많았으며,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에 다 하는 경우가 31.5%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오후 보육시간 중에 하는 경우가 23.3%로 가장 적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개인민간 보육시설은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 중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법인과 가정 보육시설은 오전에, 직장은 오후 보육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재지역별로 보면, 지역과 상관 없이 전체 결과와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

<표 3-8> 특별활동 시간대

구분	단위: %(개소)			
	오전	오후	오전·오후	합계
전체	45.1(432)	23.3(223)	31.6(302)	100.0(957)
설립유형				
국공립	20.3(13)	32.8(21)	46.9(30)	100.0(64)
법인	39.1(27)	23.2(16)	37.7(26)	100.0(69)
부모협동	-	-	-	-
개인민간	31.1(131)	32.1(135)	36.8(155)	100.0(421)
직장	8.3(1)	58.3(7)	33.3(4)	100.0(12)
가정	66.5(260)	11.3(44)	22.3(87)	100.0(391)
소재지역				
대도시	39.5(143)	26.8(97)	33.7(122)	100.0(362)
중소도시	48.7(254)	21.6(113)	29.7(155)	100.0(522)
읍면지역	47.9(35)	17.8(13)	34.2(25)	100.0(73)
시설규모				
20인 이하	63.0(272)	14.4(62)	22.7(98)	100.0(432)

21인 ~ 39인	30.6(67)	38.4(84)	31.1(68)	100.0(219)
40인 ~ 65인	30.3(44)	26.2(38)	43.4(63)	100.0(145)
66인 이상	30.4(49)	24.2(39)	45.3(73)	100.0(161)

라. 특별활동 실시장소

특별활동 실시장소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9>와 같다. 대부분의 활동은 보육 시설에서 실시되었으며, 간혹 사유시설이나 공용시설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수학과 컴퓨터 관련 활동은 100% 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며, 체육 관련 활동은 사유시설에서 실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타로는 공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육시설과 사유시설, 보육시설과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표 3-9> 특별활동 실시장소

구분	보육시설	사유시설	기타	합계
관련활동				단위: %(개)
미술	98.6(283)	1.4(4)	-	100.0(297)
음악	98.6(292)	1.4(4)	-	100.0(296)
체육	80.7(405)	14.9(75)	4.4(22)	100.0(502)
과학	97.9(142)	0.7(1)	0.7(1)	100.0(145)
수학	100.0(50)	-	-	100.0(50)
한글	99.2(131)	0.8(1)	-	100.0(132)
외국어	99.3(709)	0.7(5)	-	100.0(714)
교구이용	99.6(697)	0.4(3)	-	100.0(700)
기타	96.7(118)	-	3.3(4)	100.0(122)

마. 외부학원 연계

외부 학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3-10>과 같다. 외부 학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부모님에게 소개해 주는 경우는 17.1%로 소개해주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적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개인민간 보육시설이 소개해 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장보육시설은 소개해 주는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도 소개해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소재지역 로 보면, 대도시가 소개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소개해주는 경우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21인 이상 39인 이하 시설이 소개해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외부학원 실시 특별활동 부모 소개 여부

구분	단위: %(개소)		
	소개함	소개하지 않음	합계
전체	17.1(171)	82.9(831)	100.0(1002)
설립유형			
국공립	4.5(3)	95.5(64)	100.0(67)
법인	11.4(8)	88.6(62)	100.0(70)
부모협동	-	100.0(1)	100.0(1)
개인민간	24.1(104)	75.9(328)	100.0(432)
직장	-	100.0(12)	100.0(12)
가정	13.3(56)	86.7(364)	100.0(420)
소재지역			
대도시	23.2(89)	76.8(295)	100.0(384)
중소도시	14.0(76)	86.0(466)	100.0(542)
읍면지역	7.9(6)	92.1(70)	100.0(76)
시설규모			
20인 이하	13.3(62)	86.7(403)	100.0(465)
21인 ~ 39인	22.1(50)	77.9(176)	100.0(226)
40인 ~ 65인	19.0(28)	81.0(119)	100.0(147)
66인 이상	18.9(31)	81.1(133)	100.0(164)

보육시설에서 외부 학원 등에서 하는 특별활동을 부모에게 소개해줄 경우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1>과 같다. 부모님의 요구가 78.9%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학원 등과의 친분은 6.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타 이유가 14.5%로 나타났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특기를 파악하고자, 영유아의 다양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영유아가 재능이 있어서, 큰아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이라서, 아이들과 부모님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지역 문화센터 등에서 홍보를 요청해서,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환경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사가 보기에 필요하고 좋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3-11> 소개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부모님의 요구	학원 등과의 친분	기타	합계
전체	78.9(131)	6.6(11)	14.5(24)	100.0(166)
설립유형				
국공립	100.0(3)	-	-	100.0(3)
법인	85.7(6)	-	14.3(1)	100.0(7)
부모협동	-	-	-	-
개인민간	84.6(88)	4.8(5)	10.6(11)	100.0(104)
직장	-	-	-	-
가정	65.4(34)	11.5(6)	23.1(12)	100.0(52)
소재지역				
대도시	75.6(65)	8.1(7)	16.3(14)	100.0(86)
중소도시	82.4(61)	5.4(4)	12.2(9)	100.0(74)
읍면지역	83.3(5)	-	16.7(1)	100.0(6)
시설규모				
20인 이하	65.5(38)	10.3(6)	24.1(14)	100.0(58)
21인 ~ 39인	84.0(42)	10.0(5)	6.0(3)	100.0(50)
40인 ~ 65인	81.5(22)	-	18.5(5)	100.0(27)
66인 이상	93.5(29)	-	6.5(2)	100.0(31)

3. 특별활동 실시 이유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표 3-12>와 같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은 부모의 요구 때문(27.1%),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24.4%) 순이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적인 결과와 다르게 부모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직장과 가정 보육시설은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재지역별로 보면, 소재지역과 상관없이 전체의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시설 규모가 클수록 부모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기타에는 교사의 업무분담 및 시설 운영의 재정적 도움 등이 있었다.

<표 3-12> 특별활동 실시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부모의 요구	영유아 발달에 도움	프로그램 다양화	기타	합계
전체	27.1(260)	47.5(456)	24.4(234)	0.9(9)	100.0(959)
설립유형					
국공립	42.2(27)	39.1(25)	18.8(12)	-	100.0(64)
법인	36.2(25)	44.9(31)	17.4(12)	1.4(1)	100.0(69)
부모협동	-	-	-	-	-
개인민간	34.8(147)	37.4(158)	26.0(110)	1.9(8)	100.0(423)
직장	16.7(2)	66.7(8)	16.7(2)	-	100.0(12)
가정	15.1(59)	59.8(234)	25.1(98)	-	100.0(391)
소재지역					
대도시	30.6(111)	47.9(174)	20.7(75)	0.8(3)	100.0(363)
중소도시	23.0(125)	47.8(250)	27.7(145)	0.6(3)	100.0(523)
읍면지역	32.9(24)	43.8(32)	19.2(14)	4.1(3)	100.0(73)
시설규모					
20인 이하	15.3(66)	60.2(260)	24.5(106)	-	100.0(432)
21인 ~ 39인	30.5(67)	40.9(90)	25.9(57)	2.7(6)	100.0(220)
40인 ~ 65인	39.3(57)	31.7(46)	27.6(40)	1.4(2)	100.0(145)
66인 이상	43.2(70)	37.0(60)	19.1(31)	0.6(1)	100.0(162)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특별활동이 영유아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설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시설은 한 곳밖에 없었으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모두 특별활동이 영유아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 보육시설은 조금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체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40인 이상 65인 이하 시설 모두 특별활동이 영유아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고, 20인 이하 보육시설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다.

<표 3-13>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개소)

구 분	많이 도움	조금 도움	합계
전체	87.7(401)	12.3(56)	100.0(457)
설립유형			
국공립	100.0(24)	-	100.0(24)
법인	90.9(30)	9.1(3)	100.0(33)
부모협동	-	-	-
개인민간	91.1(144)	8.9(14)	100.0(158)
직장	100.0(8)	-	100.0(8)
가정	83.3(195)	16.7(39)	100.0(234)
소재지역			
대도시	88.5(154)	11.5(20)	100.0(174)
중소도시	87.6(218)	12.4(31)	100.0(249)
읍면지역	85.3(29)	14.7(5)	100.0(34)
시설규모			
20인 이하	84.6(220)	15.4(40)	100.0(260)
21인 ~ 39인	90.0(81)	10.0(9)	100.0(90)
40인 ~ 65인	100.0(46)	-	100.0(46)
66인 이상	88.5(54)	11.5(7)	100.0(61)

4. 특별활동 비용

가. 특별활동 비용 수납방법

특별활동 참가비용 수납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14>와 같다. 대체적으로 매월 받는 곳이 가장 많았고, 분기, 반기, 연으로 받는 경우는 소수였다. 컴퓨터 관련 활동의 경우 분기별로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4> 특별활동비 수납방법

단위: %(개)					
구분	매월	분기	반기	연	합계
전체	89.3(1,107)	3.7(46)	3.2(40)	3.8(47)	100.0(1,240)
관련활동					
미술	90.0(99)	2.7(3)	1.8(2)	5.5(6)	100.0(110)
음악	89.0(105)	6.8(8)	2.5(3)	1.7(2)	100.0(118)
체육	94.3(181)	2.1(4)	2.6(5)	1.0(2)	100.0(314)
과학	88.1(59)	4.5(3)	6.0(4)	1.5(1)	100.0(67)
수학	89.7(26)	10.3(3)	-	-	100.0(29)
한글	87.7(50)	1.8(1)	5.3(3)	5.3(3)	100.0(57)
외국어	90.7(360)	3.5(14)	4.0(16)	1.8(7)	100.0(397)
교구이용	87.0(208)	2.5(6)	2.1(5)	8.4(20)	100.0(239)
기타	62.5(20)	12.5(4)	6.3(2)	18.8(6)	100.0(32)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하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또는 부모대표와의 심의나 협의 여부를 살펴보면 <표 3-15>와 같다. 응답 시설의 85.2%가 심의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하는 시설에서는 대체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나 부모대표와의 심의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법인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의나 협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심의나 협의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시설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심의나 협의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3-15> 특별활동비의 심의·협의 유무

단위: %(개소)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85.2(471)	14.8(82)	100.0(553)
설립유형			
국공립	96.2(51)	3.8(2)	100.0(53)
법인	90.5(38)	9.5(4)	100.0(42)
부모협동	-	-	-
개인민간	87.9(248)	12.1(34)	100.0(282)
직장	85.7(6)	14.3(1)	100.0(7)
가정	75.7(128)	24.3(41)	100.0(169)
소재지역			
대도시	86.0(202)	14.0(33)	100.0(235)
중소도시	83.0(229)	17.0(47)	100.0(276)
읍면지역	95.2(40)	4.8(2)	100.0(42)
시설규모			
20인 이하	76.3(142)	23.7(44)	100.0(186)
21인 ~ 39인	84.2(123)	15.8(23)	100.0(146)
40인 ~ 65인	92.1(93)	7.9(8)	100.0(101)
66인 이상	94.2(113)	5.8(7)	100.0(120)

나. 연령별, 활동별 특별활동 비용

연령별 특별활동비는 <표 3-16>과 같다. 특별활동비를 받을 경우 특별활동 하나당 수납비용 평균은 15,591원이었다.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120,000원이고, 최소값은 1,000원으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0세가 18,83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만 5세, 만 2세, 4세, 3세, 1세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 3가지 특별활동에 참가하고, 특별활동의 38%에 대해 특별활동비를 수납한다고 보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약 18,000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연령별 평균 특별활동비

단위: 개, 원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3,148	15,591	10,619	120,000	1,000
만 0세	12	18,833	10,338	50,000	12,000
만 1세	124	15,154	7,564	39,000	4,000
만 2세	548	15,755	10,091	90,000	2,000
만 3세	865	15,290	10,446	120,000	1,000
만 4세	838	15,525	10,808	120,000	1,000
만 5세	761	15,907	11,494	120,000	1,000

활동영역별, 연령별 평균 특별활동비는 <표 3-17>과 같다. 종류별로 보면 특별활동비용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미술 프로그램의 평균 비용이 19,58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구이용 프로그램이 17,095원, 음악, 16,561원, 외국어 15,183원 순이었다. 한편 특별활동 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과학 프로그램으로 10,679원이었다. 비용의 최대값은 외국어 프로그램 120,000만원이었으며, 최소값은 기타 1,000원이었다. 미술과 수학 프로그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체육, 과학의 경우 만 0세나 만 1세의 어린 연령에 대한 비용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3-17> 활동영역별, 연령별 평균 특별활동비

단위: 개, 원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미술전체		313	19,588	11,883	50,000	3,300
	만 0세	0	-	-	-	-
	만 1세	16	12,388	4,892	24,500	5,000
미술	만 2세	56	18,810	11,433	50,000	5,000
	만 3세	85	19,985	12,363	50,000	5,000
	만 4세	82	20,387	12,269	50,000	3,300
	만 5세	74	20,393	12,754	50,000	3,300
음악전체		333	16,561	11,740	55,000	3,000
음악	만 0세	2	17,500	3,536	20,000	15,000

	만 1세	14	13,750	5,944	25,000	5,000
	만 2세	46	14,257	7,924	35,000	3,000
	만 3세	82	15,900	10,943	50,000	3,000
	만 4세	96	16,977	13,045	55,000	3,000
	만 5세	93	18,256	14,031	55,000	3,000
체육전체		589	13,865	9,605	50,000	2,500
	만 0세	3	28,333	18,930	50,000	15,000
	만 1세	30	14,340	7,767	30,000	4,000
체육	만 2세	109	13,439	8,859	50,000	2,500
	만 3세	155	13,070	8,963	50,000	2,500
	만 4세	153	14,016	10,085	50,000	2,500
	만 5세	137	14,515	10,586	50,000	2,500
과학전체		152	10,679	6,399	30,000	3,000
	만 0세	0	-	-	-	-
	만 1세	2	15,000	7,071	20,000	10,000
과학	만 2세	12	9,031	4,752	20,000	3,000
	만 3세	44	10,924	6,445	30,000	3,000
	만 4세	49	10,910	6,507	30,000	3,300
	만 5세	45	10,436	6,646	30,000	3,000
수학전체		52	16,046	12,004	50,000	5,000
	만 0세	0	-	-	-	-
	만 1세	1	12,000	-	12,000	12,000
수학	만 2세	5	12,540	10,033	30,000	6,000
	만 3세	14	15,407	13,047	50,000	5,000
	만 4세	16	17,312	12,176	50,000	5,000
	만 5세	16	16,688	12,285	50,000	5,000
한글전체		97	12,472	7,640	50,000	3,000
	만 0세	1	15,000	-	15,000	15,000
	만 1세	2	13,750	1,768	15,000	12,500
한글	만 2세	15	10,792	5,985	21,000	3,000
	만 3세	26	12,091	7,300	30,000	3,000
	만 4세	27	12,185	6,891	30,000	3,000
	만 5세	26	13,923	10,458	50,000	3,000
외국어전체		959	15,183	10,461	120,000	3,300

외국어	만 0세	2	17,500	3,536	20,000	15,000
	만 1세	23	16,500	7,587	30,000	5,000
	만 2세	159	15,545	10,087	90,000	3,300
	만 3세	281	15,067	10,451	120,000	3,300
	만 4세	262	14,909	10,434	120,000	3,300
	만 5세	232	15,233	11,104	120,000	3,300
교구이용 전체		596	17,095	10,062	60,000	2,000
교구이용	만 0세	4	14,000	4,000	20,000	12,000
	만 1세	36	16,922	8,964	39,000	6,700
	만 2세	142	17,926	10,328	60,000	2,000
	만 3세	166	16,658	10,020	60,000	2,000
	만 4세	132	16,915	9,900	60,000	3,300
	만 5세	116	17,068	10,530	60,000	2,000
기타전체		58	15,095	13,458	60,000	1,000
기타	만 0세	0	-	-	-	-
	만 1세	0	-	-	-	-
	만 2세	4	27,375	22,787	60,000	7,000
	만 3세	11	16,727	16,250	60,000	1,000
	만 4세	21	13,548	12,025	50,000	1,000
	만 5세	22	13,523	11,736	50,000	1,000

다. 특별활동 교재비

특별활동 평균 월 교재비는 <표 3-18>과 같다. 특별활동 교재비를 받는 비율은 전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8.7% 정도이며, 1,000원에서 60,000원까지 그 편차가 심하고, 평균적으로는 8,35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교재비를 받는 경우는 외국어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구 이용, 한글, 과학 프로그램 순이었다. 미술, 교구 이용, 기타 프로그램의 교재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학, 체육 프로그램의 교재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18> 특별활동 월평균 교재비

단위: 개, 원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256	8,351	7,942	60,000	1,000
관련활동					
미술	13	10,321	15,942	60,000	1,667
음악	14	7,357	7,156	30,000	2,000
체육	5	5,200	3,114	10,000	2,000
과학	16	6,344	2,495	12,500	4,167
수학	14	4,905	2,882	10,000	1,000
한글	28	8,452	7,873	40,000	1,500
외국어	115	7,963	6,395	50,000	1,917
교구이용	41	10,089	8,439	3,5000	1,500
기타	10	13,842	15,484	50,000	1,667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1997).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2005). 유아교육법.
- 교육인적자원부(2005). 유아교육시행계획.
- 국립교육평가원(1997). 초·중학교 특별활동 운영·평가 실태분석 연구.
- 김기연(2005). 유치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법정(2005).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한 어머니 요구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명·서영숙(2006).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 발달 적합성과 사회·문화 적합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15-136.
- 나정 외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3 :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박지연·이숙현·백진아(2005).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한국가족관계학회, 10(1), 157-179.

- 서문희 외 (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양옥승·김영실·김진영·김현희(2001). 유아 영어교육의 적합성. 한국교육, 28(2), 347-367.
- 여성가족부(2006). 영유아보육법령집.
-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07).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07-1호.
- 오효선(2001). 취학전 유아의 조기교육 실태 조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남희(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아동권리 연구, 8(2), 189-207.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윤기영·권미경(2004). 유치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분석.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총, 9, 117-136.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한국아동학회지, 23(4), 137-152.
- 이명조·정선아·이정화(2003). 한국 유아의 조기교육. 집문당.
- 이미화 외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2 :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이선정(2003). 유치원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 및 교사 인식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2003). 아동의 발달권에서 본 영유아보육·교육의 실태화 발전방향. 2003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영유아 보육·교육과 아동의 권리, 47-64. 아동권리학회.
- 이정화·정선아(2004). 사립 유치원 원장이 바라보는 특별활동 운영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8(4), 69-87.
- 이정화·정선아·이명조(2003).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 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85-118.
- 허명순(2007).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부모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토 론 문

김영옥(전남대학교 교수)

정대련(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기숙(이화어린이연구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황운옥(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토론 1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 보고」에 대한 토론

김 영 옥 (전남대학교 교수)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보고」는 보육프로그램에 있어서 특별활동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보육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 보고」에 대한 논의들

가.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내용

「실태 보고」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곳(95.6%)은 실시하지 않는 곳(4.4%)보다 훨씬 많았으며 그 종류는 대체로 1-10가지 중 2가지를 실시하는 곳(27.7%)이 많았다. 특별활동 영역의 종류는 크게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교구 이용, 기타 등 9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세부적으로는 NIE, 오르프, 가베, 호크마 등 90개의 특별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전국보육시설 실태조사 연구(이미화 외, 2005)에서도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곳이 69.7%로 나타났으며, 1가지를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활동의 실시여부 및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연구들(김영명, 서영숙, 2006; 서문희 외, 2002; 이기숙 외, 2002; 이선정, 2003)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특별활동의 운영 형태

특별활동의 선택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선택(35.3%)보다는 의무(64.7%)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교구 이용, 체육, 음악, 미술, 과학, 한글, 기타, 수학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에서 만 2세는 교구 이용 프로그램을, 만 3세에서 만 5세는 외국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특별활동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보육교사(39.7%)에 비해 외부 강사(60.3%)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음악, 체육, 외국어, 컴퓨터 관련 활동의 경우 외부의 별도 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미술, 과학, 수학, 한글, 교구 이용 관련 활동은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시간대를 보면 오전 보육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45.1%)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특별활동은 보육시설 내에서 실시되었으며 간혹 사유시설이나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외부학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소개하지 않고 있음(82.9%)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17.1%)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태 보고」는 특별활동이 외국어 특히, 영어가 가장 많았고, 미술, 체육, 음악, 한글, 한자, 수학 등의 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김법정, 2005; 서문희 외, 2002; 이기숙 외, 2002; 이미화 외, 2002; 허명순, 2007)과 유사하다. 그러나 윤기영 외(2004)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전통 문화 및 체험 활동이 가장 높았고, 자연체험, 요리활동, 미술, 음악, 책 만들기, 토의, 종이접기, 바느질놀이 등의 순으로 나타난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별활동 담당자에 대해서 외부강사가(71%)가 보육교사(29%)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 하였다(이기숙 외, 2002). 특별활동 시간대에 대해서는 오후 보육시간(35.8%)에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경숙, 1992; 이미화 외, 2005; 이은실, 2003), ‘수업 중’에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이기숙 외, 2002)도 있다.

D보육정보센터 내부 자료에 의하면, 특별활동의 1회 실시시간은 20-30분 정도가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0분이상이 28.3%, 10-20분 정도가 7.5%로 나타났다. 20-30분정도가 가장 많다는 것에는 대체로 00출판사의

영어가 많았다. 또한, 특별활동 실시활동 형태에도 일과 중 대그룹이 49.7%, 소그룹이 35.8%, 나머지는 기타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특별활동이 대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별활동 또는 의미있는 활동이 일어날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시간도 대집단활동 시간(60.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유선택활동 시간(20.2%), 기타(12.5%), 방과 후(6.5%) 순으로 나타났다. 대집단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나누기, 신체활동, 동화 듣기 등과 같은 활동이 특별활동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의 강사료는 없다(35.5%), 21만원-30만원(23.5%), 11만원-20만원(14%), 1만원-10만원(10%), 31-40만원(9%), 40-50만원(5%), 50만원 이상(3%) 순으로서 강사료는 1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설이 65.5%로 나타났다.

다. 특별활동의 실시 이유

「실태 보고」에서는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를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47.5%)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모의 요구 때문(27.1%),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24.4%)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시설규모가 클수록 부모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 이유가 다소 상이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몇몇 연구(이기숙 외, 2002; 이미화 외, 2005)에서도 특별활동은 원아모집에 도움이 되며 초등학교 준비를 생각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실시의 주된 이유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영화 외 (2003)연구에서는 교사의 업무분담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정화 외 (2003)연구에서는 재능 및 소질개발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실태 보고」 실시이유에 또 다른 잠재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라. 특별활동의 비용

특별활동 비용에 관한 질문 중 특별활동 참가비용 수납방법은 대체적으로 매

월 받는 곳(89.3%)이 가장 많았고, 특별활동비용을 받는 경우 평균은 15,591원이었으며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20,000원까지였다. 연령별로 보면 0세가 18,333원으로 가장 높고,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활동별로 보면 특별활동비용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미술 프로그램의 비용(19,588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구 이용 프로그램(17,095원), 음악(16,561원), 외국어(15,183원) 순이었다. 미술과 수학 프로그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체육, 과학, 한글, 외국어의 경우 만 0세나 만 1세의 어린 연령에 대한 비용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활동 교재비를 받는 비율은 전체 프로그램의 8.7%정도이며 1,000원에서 60,000원까지 그 편차가 심했고(평균 8,350원), 외국어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이미화 외 (2005)의 연구에서는 음악관련 프로그램의 비용(25,330원)이 가장 높고, 과학관련 프로그램의 비용(10,420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예능과목에 비용이 높은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 외에도 학습지비용을 받는 시설이 46.5%,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많게는 40,000원 이상까지 대체로 5,000원-10,000원 사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E보육정보센터 내부 자료(2006) 및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와의 면담(2007.6.26)에 의하면, 특별활동시간에 학습지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40% 정도, 그리고 1개 이상의 학습지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도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습지는 교사가 직접 지도하거나 또는 방문 교사가 담당하며,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원어민 배치교사가 영어학습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2. 우리나라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그 운영형태는 적어도 1개 이상 10개까지 운영되고 있다. 특별활동의 내용은 음악, 미술, 체육을 비롯하여 과학, 한글, 수학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10여종에 다 다르며 그 세부내용은 100여 가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활동은 대부분 원아의 귀가 시간이 각기 다른 오후보다는 오전에 실시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이어서 보육과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특별활동 담당강사의 경우도 학력, 능력, 경력, 자질 면에서 그 격차가 매우 심하다. 활동운영 형태도 보육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활동의 내용에 따라 교사가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아예 교사의 부담도 덜고 홍보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강사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여러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활동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의 차이도 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 교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편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특별활동은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때, 이 문제가 어디부터 영켜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특별활동은 ‘특별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일반, 부모의 조급함이나 인식, 나아가 가치관, 운영비와 재정, 교사의 업무, 원의 홍보 등 보육전반의 문제와 다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3.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개선방안

특별활동은 무엇이며 왜 실시하는가? 특별활동은 대체로 교과와 구별되는 의미로서 상호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1998; 교육학대사전, 1999; 이경환, 함수곤, 1998). 이를 기초로 여러 연구들(김법정, 2005; 윤기영, 권미영, 2004; 이선정, 2003; 허명순, 2007)에 의하여 시간연장제, 방과후 특별활동 등과 유사한 용어로 또는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어쨌든 특별활동은 기본적으로 표준보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과 상호보완적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며 부가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특별활동 운영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특별활동에 대한 정의와 개념 정립

우리는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이 무엇인가는 대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마다 그 개념차에 따라 내용과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마치 유아교육이 유아를 둘러싼 모든 교육으로 오해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이다. 교육학적 개념, 영유아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특별활동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별활동은 ‘특별한 활동’인가? 정규 일과 이외의 활동인가? 특별하지만 일과와 연계된 활동인가? 다양성이 점차 확장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용어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므로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 가지 만 가지 특별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활동을 모두 ‘특별활동’이라고 생각하는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비

현재 수많은 종류의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특별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되지 않고 각 교과영역을 따로 따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유아기 교육방법과는 상이하다. 또한 정규 보육활동 시간 중에 제공되어 오히려 일과를 바쁘게 하고 침해하는 현상까지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며 유아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특히 시설, 기자재, 교구자료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육적 환경을 고려할 때 검증되지 않은 구조화된 교구로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유아의 창의성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정시 유아의 흥미나 요구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원아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기준과 범위를 다듬어야 할 것이다.

다. 특별활동 강사에 대한 인증 및 교육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교사 대부분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외부강사에 의존하고 있어 유아의 발달단계나 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기능 위주의 활동을 실시하는 경향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정규 일과 이외 특별활동지도까지 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로 수업준비에 차질이 있다. 하루 12시간을 대체교사 없이 하루 종일 보육하는 교사에게 특별활동을 지도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사의 근무 조건 등 보육시설의 전반적 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나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특별활동이 되도록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강사를 제도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 올바른 보육에 대한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지

특별활동이 원의 홍보용으로 이루어진다는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는 데는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도 지나칠 수 없는 요인이다. 유아에게 교육적으로 가치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며, 왜 놀이하고 탐색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인적, 물적 교육환경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글자를 가르치거나 안가르치는 찬반보다는 글자를 터득하는데 시각변별력과 공간지각력, 소근육발달이 동원되어 문해능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한다면 글자만 쓰도록 강조하지는 않게 된다. 수개념이 비교, 분류, 서열화의 기초개념을 통해 수를 조작하고 표상하게 됨을 이해한다면 학습지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부모의 관심사와 고민에 좀더 다가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함께 올바른 영유아기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 특별활동의 내용과 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탐구

무엇보다도 정규 보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의 범위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유아에게 의

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내용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사도 특별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며 현재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참여를 강요하게 되거나 정규 보육과정을 침범 또는 부실하게 하는 일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핵은 내용의 선정과 방법의 조직이므로 교육적 내용을 선정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보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경험, 견학 또는 체험학습, 일과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보충 또는 심화함으로써 보다 질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바. 특별활동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연구

특별활동 자체만이 아니라 종일반과의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 원의 효율적 운영, 부모의 요구 및 가치,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더욱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는 왜 특별활동을 원하는가? 또는 특별활동을 좋아하는 이유와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같은 연구 역시 시의 적절하다. 종일반 경험의 의미(배지희, 이봉선, 탁옥경, 2005)와 같이 특별활동의 의미 등 현상학적 접근이나 사회문화에 적합한가?와 같은 탐색(김영명, 서영숙, 2006)도 요구된다.

보육시설의 규모가 작은 곳은 대체로 혼합연령집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설의 규모에 따른 연구도 필요하다. 어떤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혼합연령에 가능한가? 단일연령에 적합한가? 「실태 보고」에서도 만 0세-2세는 교구를 이용하며, 3-5세는 외국어를 특별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적합성 및 개인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별활동과 부모의 요구, 선호도가 있는 특별활동, 특별활동에 대한 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보다 많은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 지자체별 지원 및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학부모가 부담하는 특별활동의 비용,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문제 모두 행·재정과 관련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행정

감사는 엄격하게 실시하면서도 프로그램 질 관리는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시, 군, 읍 단위의 크고 작은 소모임 집단을 활성화하고 특별활동 시범공개, 장학협회의, 멘토링 등을 통하여 질적인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종일반의 맥락에서 다각적인 관심도 요구된다. 즉, 종일반 유아가 반일반 유아 보다 수동적 대처 중 ‘감각적 소모’의 대처 전략이 높게 나타나 종일반 유아의 정서적 위로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거나(안지영, 한진완, 김성숙, 이은영, 2007), 종일반 연구가 주로 신체, 인지, 사회적 측면을 입증한 반면 정서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배지희 외, 2005)이라는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사가 지역사회의 자기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실천적 지식을 쌓으며 지속적으로 탐구하도록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아. 활동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탐색

전통과 다문화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어떤 것이 더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더 세계시민으로서 언어표현력과 관계적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하는 교육적 탐색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전통문화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문화에 대한 사고와 지혜의 안목을 넓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특별활동은 없는가? 유아가 기쁘게 참여하고 부모와 교사가 보람을 느끼며 시설의 운영자에게도 효율적인 ‘특별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떤 것이 특별활동으로 가치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탐색의 결과를 공유하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넓어질수록 ‘특별활동’이라는 교육적 소재는 그야말로 교육적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말

대다수 보육시설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활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이 주관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활동’이 되고 있다. 현장의 시설장과 교사들의 회의와 혼란을 줄이고 보다 교육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아의 성

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자리잡기 위해 이와 같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숙(1992). 유치원 종일제 교육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법정(2005).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한 어머니 요구 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명, 서영숙(2006).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 발달 적합성과 사회, 문화 적합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15-136.
- 배지희, 이봉선, 탁옥경(2005).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237-258.
-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정책보고서 2002-3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지영, 한진원, 김성숙, 이은영(2007). 종일반과 반일반 유아의 대처행동 유형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49, 107-128.
- 윤기영, 권미영(2004). 유치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분석.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원논총, 9, 117-136.
- 이경환, 함수곤(1998). 초등학교교육과정해설집 2권. 서울: 교문사.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2).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3(4), 137-152.
- 이미화 외(2005). 2004년도 전국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연구보고 2005-04. 여성가족부.
- 이선정(2003). 유치원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실(2003). 유치원 종일제 학급 운영 실태 연구: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정선아, 이명조(2003).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85-118.
- 허명순(2007).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부모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토론 2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 보고」에 대한 토론

정 대 련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오늘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보고>는 특별활동에 대하여 전문가의 입장과 보육현장의 입장,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과 수요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충분한 인적 자원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의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별활동들이 영유아의 권리 즉 선택권, 발달권, 놀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고,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상업성을 띠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산물로서, 특별활동의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What”의 문제, 즉 특별활동의 개념 정의(definition)와 내용(content)에 관한 문제이다. 특별활동이란 무엇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을 광의로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협의로 ‘비용을 별도로 수납하거나, 보육교사 이외의 별도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흔히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기교육, 조기특기교육, 시간 연장제 프로그램, 방과후 특별활동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영유아 보육법>이나 <보육사업 안내> 등

보육규정 관련 문서에서 특별활동이란 말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보육비용 관련 규정에서 특별활동에 대해 언급된 곳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2007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따르면, 특기(특별) 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인 요청(동의서 청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기활동비 등에 관해서는 실비 경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2007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 상의 특별활동에 대한 모순된 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보육과정”이 아니다.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정의처럼, 이 지침은 현재 등원하여 보육시설에 머무르고 있지만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만큼은 보육시설의 관리를 벗어나 있다는 말처럼 해석될 수 있다. 장소만 보육시설일 뿐, 보육시설의 의사나 책임과는 관련 없이 전적으로 외부적 조건에만 의존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듯이 이해된다. 그런가 하면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문구에서는 이미 그런 아동이 방치되고 있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다분함을 전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미 대다수 시설에서 우리 영유아들이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단초가 되는 개념적 정의부터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시행계획(2005)>은 유아발달에 “부적절한 특별활동”을 근절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이도 “적절한” 경우라면 특별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애매하다. 다만 영어지도, 학습지 활용, 유치원 일과 중 기능교육을 특별활동이라 명명하고 이를 근절하고 지도 감독하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특별활동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뜻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육기관이라 하여 이 뜻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유아의 발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육활동이 유아를 위한 교육목적과 상치될 수 있는가? 보육정책위원회는 특별활동비를 규정하기 이전에, 보육시설이 지향해야 할 궁극 목적에 대해 다시금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보육시설이라면,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 즉 사회관계, 의사소통, 신체·운동, 자연과학탐구, 예술탐구, 기본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문제

를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육 현실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특별활동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가 쉽지 않음이 예상 가능 하므로,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을 실시함이 과연 ‘적절한가’
의 논제는 잠시 미루고, 현 실태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우선 특별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미술(9), 음악(13),
체육(12), 과학(4), 수학(4), 한글(8), 외국어(3), 교구 이용(19), 기타 (21) 등의 종류
로 분류 집계되어 있다. 그리고 9 가지 각각은 다양한 하위 프로그램 내용을 포괄
하고 있다. 특별활동을 위의 9 가지 종류로 범주화 할 때, 영어·일본어·중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프로그램이 24.3%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었고, 교구를 이용한 프
로그램 내용이 23.9%, 체육 관련 내용이 17.1%, 그리고 음악, 미술 등의 순서로 특
별활동 프로그램이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활동 내용들은 “기본적인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서 “보육과정이 아니”지만, ‘비용을 별도로 수납하거나, 보육교사 이외
의 별도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수십만 명의 영유아들
이 보육시설 내에서 다수의 보육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6개 영역(사회관계/의사소통/
신체·운동/자연과학탐구/예술탐구/기본생활)의 활동권역을 벗어날 수 있는가? 즉
특별활동이 보육시설의 기본 역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이다. 보육시설의 보호와 양육이란 본질적인 임무, 다시 말해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몸과 마음을 기르는, 건강한 지덕체(智德體)를 키워야 할 임무가 특별활동으로 전개
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과는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가져야 하
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이미 지나치게 번다하게 발전 전
개되어 버린 현실적 여건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려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너무 늦었
다고 단정해야 하는가 하는 고뇌를 남긴다.

둘째 “Why” 에 관한, 즉 왜 특별활동을 해야 하는가(purpose) 또는 특
별활동이 왜 필요한가(objectives) 하는 문제이다.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첫째 영유아의 발달
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47.5%). 직장소속시설의 100%를 비롯
하여 각종 시설의 90%가 영유아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으며 ‘조금

도움이 된다'를 합하면 100%로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보이고 있다. 기왕에 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인 만큼 재원 영유아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리란 믿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영유아시기에 이루어지는 발달과 그러한 발달을 위한 지원 방법을 밝혀왔다. 걸음마기 즉 18개월-36개월 유아는 하루 12시간의 충분한 수면(신홍범, 2007)을 취해야 하고, 자기 충동(공격성) 조절과 통제, 만족 지연능력 획득, 옹고그름이나 깨끗함과 더러움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구별, 대상 항상성(object constancy) 및 분리 계별화(separation-individuation) 등 심리적 자아상과 자율성의 확립(천근아, 2007)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부모나 교사는 오감교육으로 다양한 자극을 주고 스킨십과 애착형성, 즐겁게 놀면서 말을 많이 해주고 충분한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홍강의, 2007).

학령전기인 3-6세의 유아는 하루 평균 11-12시간의 수면을 취하고(신홍범, 2007), 동성 부모를 동일시(Oedipus complex)하며 성적 역할을 습득하고, 사회화 되고, 전통적 관습과 예의범절 등 대인관계에 필요한 덕목을 습득하여야 한다(천근아, 2007). 그리고 부모나 교사는 유아의 종합적 사고기능과 인간성을 키우기 위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많이 읽어 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게 하며, 남에 대한 배려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며, 자신의 생각·감정·행동을 인지하고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또래와의 접촉을 장려하고 함께 어울리게 해야 한다(홍강의, 2007).

그렇다면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발달을 추구한다 함은 이러한 발달지원의 요소와 얼마나 연관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의 요구(27.1%)와 프로그램의 다양화(24.4%)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자신들이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린 자녀들의 “뛰어난” 발달을 그리며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리라 예상된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부모들의 요구 내지 희망을 보육시설에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영유아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발달을 고려할 때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기준은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자녀

들의 남보다 한 발 앞선 발달을 기대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조바심과 지나친 교육 열은 재원 시설의 충실한 보육에 만족하지 않고, “남보다 조금 다르고 하나 더 많은 또는 최소한 남에게 뒤지지 않는” 특별프로그램을 부추기는 세대에 눈 돌리도록 압박함으로써, 결국은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보육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바람직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과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의 투철한 보육철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셋째 “How”, 즉 어떠한 방법으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가(policy) 또는 특별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methods/skills)라는 문제이다.

특별활동의 각 프로그램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56%~ 72% 정도가 부모가 선택하기 보다는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만 3세를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4세, 2세, 5세, 1세, 0세 순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공의 수가 많다. 특별활동비는 매월 수납하는 경우가 89.3%로 가장 많고, 분기별, 반기별, 연 단위로 수납하는 경우가 합하여 10% 정도이다. 연령별 평균 특별활동 비용은 1,000원부터 300,000원에 이르고, 0세를 위한 특별활동비가 평균 37,000원으로 가장 높다. 활동영역별 연령에 따른 평균 특별활동비는 체육에서 만3세 유아 대상이 300,000원으로 가장 높고, 외국어의 경우 만 3세 대상이 214,500원, 기타 연령이 모두 150,000원으로서 높은 활동비를 나타내고 있다. 한글프로그램도 0~2세 까지는 120,000원으로 특별활동비 중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현상은 3세 유아에게 투입되는 특별활동비가 다른 연령에 비해 큰 폭으로 차이를 나타내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3세는 유치원 등 실질적인 기관 교육의 대상으로서 조기교육을 통한 영재 육성을 기대하는 부모들의 교육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자들과 판매 전략이 이 시기를 공략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찾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보다 양질을 추구하며 눈에 확인되는 증거인 비싼 수업료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연 이러한 추가 수업료를 지불하며 실시하는 특별활동이 바람직한 영유아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타당한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보육시설 관점에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특별활동 선택이란 응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기 어렵다. 외부로부터 별도의 프로그램을 도

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함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실패하였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장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깊게 인식하고 시설의 여러 인적 물적 요소를 지원하고, 보육교사가 담당할 유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여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한다면, 특별활동의 1개 추가 내지 10개 추가로 보육교사가 단지 담당 유아들에게 이 방 저 방 인도하는 길 안내자 역할만을 하며 오히려 산만한 보육의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별활동에 쏟는 보육비를 정상적인 보육에 지원할 수 있는 보육시설장의 소신과 당국의 체제 정비를 통한 현실적 지원이 더욱 필요해지는 문제이다.

다른 한편 특별활동 실시 형태에 있어서 위 보고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실시하는 형태 또는 방법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프로그램 성격이 지니는 방법론은 무엇이며, 어떠한 교수법에 의하여 진행되는지에 따른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When”에 관한, 즉 특별활동을 해야 할 시기(critical period/optimum period))는 언제인가 또는 특별활동을 언제 하는가(time schedule)에 대한 문제이다.

특별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시간대는 오전, 오전·오후, 오후 등으로 나누어 볼 때, 법인시설과 가정시설은 오전 시간대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45.1%), 국공립시설과 개인민간시설은 오전·오후시간대(31.6%)를, 직장시설은 오후시간대(23.3%)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지역이나 시설규모에는 상관없이, 특별활동을 위해 할당하고 있는 시간대의 전체적 추이가 비슷하다. 이는 각 기관의 보육형태와 인적, 물적 환경적 요소, 그리고 특별활동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시간대를 배정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리라 추정하게 한다. 인지적 또는 정적인(활동적인에 대비된) 특별활동이면서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 오전 시간대 배정이 적절하거나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정서적 또는 활동이 큰 특별활동인 경우 오후 시간대 배정이 더 적절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전 오후 등 보육이 이루어지는 전 시간대를 관통하며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보육현장이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는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표준보육과정이 영유아들의 전인발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면 보육시설로서의 자적

을 반납하고 학원시설 등 다른 특별활동 시설로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한 편 특별활동프로그램이 표준보육과정의 현실적 적용의 한 예로 쓰이고 있다는 응답도 가능하다. 보육교사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일·주·월·연 단위의 보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내용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작업은 보육교사의 연구와 충실한 준비라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겠다.

한편 보다 기본적인 물음을 해본다면 특별활동의 적절한 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 소위 특별활동(교육)에 대해 적기(Optimum period) 또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를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어린 시기의 교육에 있어서 각인, 결정적 시기, 최대 학습기, 학습 민감기, 학습 최적기를 고려한다면(홍강의, 2007),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똑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뇌 및 신체 각 부분의 가소성이 활발한 시기 즉 적기에 유아 개개인의 발달에 맞는 발달 과제로서 유아의 감각·운동·정서·사회성·언어·인지 등 각 영역이 세분화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도록 특별활동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전국의 특별활동이 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과 발달시기에 맞는 것인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때가 적기이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없다고 본다.

다섯째, “Who”, 즉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이며(subject, teacher, instructor), 특별활동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object, children, learner)라는 인적 요소와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담당자하고 있는 다수가 보육교사로 나타나고 있다. 수학프로그램의 78.6%(무료, 유료프로그램인 경우 82.9%, 이하 동일순서임)를 필두로 하여, 미술77.2%(43.1%), 과학 69.0%(68.9%) 한글 62.3%(56.4%), 교구 이용 프로그램의 71.4%(47.5%)를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특별 활동은 외국어프로그램(무료80.8%/유료93.5%)과 음악(72.1%/82.4%), 체육(75.3%/90.9%) 활동들이다. 여기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다시금 제기된다.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연수 및 적용 기간과 전문 능력을 소지하고 실시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더불어 유아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적절한 교수법을 습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양측 모두 철저한 준비와 열정으로 해당 특별활동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의욕 면에서는 이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각의 여건에서 이러한 의욕이 현실화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한 예로 외국어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외국어 능통자나 외국어 전공자가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에 대한 확신은 크지 않다.

또한 특별활동과 관련한 인적 요인으로서 영유아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연령 및 기타 각 영역별 발달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우선이며, 특별활동은 차후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영유아의 발달적 가소성에 대한 긍정적 믿음은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유아가 능력이 동일하지도 않음도 사실이다. 지금 당장 영유아가 습득 가능하다고 해도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거나 느낀다고 해도 언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무언중에 특별활동이 유아에게 과중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고통은 고스란히 유아에게 돌아간다는 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도 가르칠 수 없으며,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원장과 교사들이 현재 표준보육과정에 얼마만큼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진실로 그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며, 그러한 결과가 바로 유아의 행복한 삶에 닿아있다고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Where", 즉 특별활동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institution) 또는 어디에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가(space) 하는 문제이다.

현재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95.6%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보육시설이 96.0%로 가장 높고, 시설규모가 클수록(66인 이상)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 높다(98.8%).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종류는 시설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까지이며, 2개 내지 4개를 실시하는 시설이 대수를 이루고 있다. 2 - 4개의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설립 유형별에서는 국공립 시설이 89.1%를, 소재 지역별에서는 읍면지역 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75.3%)을 보이고 있다. 읍면 지역에 까지 2-4개 정도의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이 정도 비율로 실시하고 있음을 미루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이 적절한가, 또는 특별활동을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제를 제기하기가 이미 현실적으로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미 특별활동에 관련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프로그램들이 그 자체로 멀리 진전하고

진화해 버려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으니 출발선상에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함이 오히려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난을 받게 될 지경이다.

그런가 하면 특별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로는, 체육프로그램(80.7%)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별활동(96.7%~100%)이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체육프로그램 14.9%가 기타 사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학, 컴퓨터프로그램(100%)을 비롯하여, 모든 특별활동이 보육시설을 주 활동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부모에게 외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로 부모가 요구하기 때문에 소개하지만, 좋은 정보제공으로 기관과 부모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서 또는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교육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육시설에서 소개하기도 하고, 교사가 필요성을 느끼거나 양질의 프로그램이라 판단하여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외부 특별활동시설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육시설 내부나 외부,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특별활동이 우리의 영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특별활동을 스스로 원하고 즐기며 그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아들은 새로운 경험이고 특별활동 교사가 제공하는 외적 보상에서 흥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특별활동을 재미나 흥미에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공부”로 생각하며 그 시간을 참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면이 더욱 크다. 또한 많은 교사들도 유아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객관적 관찰, 그리고 유아의 흥미나 발달 및 효과가 부모의 기대나 확신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도 이 시점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국제연합에 의하여 채택되고 1991년 이후 우리나라도 실행당사국이 아동권리선언이다. 이에 따르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법령과 제 수단에 의하여 아동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정신적 및 사회적 발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와 설비가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제2조).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와 적절한 영양의 공급, 주택, 여가 및 진료를 받을 권리(제4조)를 가지며,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안정과 애정을 향유할 수 있는 여

건에서 성장(제6조)하여야 하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놀이와 여가를 누릴 기회(제7조)를 가지고, 관용, 우정, 평화의 정신과 보편적인 양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양육(제10조) 되어야 한다.

한편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날 정신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서도 천명한 바, 아동은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며, 좋은 교육 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 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나가는 힘을 길러야 하며,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고,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나아가 아동은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하고,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00 여 년 전, 코메니우스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는 유아가 어린 시기에 익히고 배워야 할 교육과정으로 형이상학, 자연학, 광학, 천문학, 지리학, 연대학, 역사, 산술, 기하학, 통계학, 기계학, 변증법, 모국어, 수사학, 시학, 음악, 가정경제운영, 정치학, 도덕(윤리), 종교 등 20개 항목을 포함시키며, 유아 시기에는 이러한 모든 지식의 기초를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덕의 실천은 제 2의 본성이 되어야 하므로 도덕(윤리)은 유아기에 가장 견고하게 닦아 두어야 할 내용이라 강조하며, 절제, 청결함, 경외함, 순종, 진실, 정의, 사랑하기, 무위(無爲)함을 견딜 수 없는 마음, 적게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한 침묵 지키기, 인내심, 친절함, 마음과 타인을 기쁘게 돕는 마음, 좋은 예법을 훈련하여 인간됨의 기초를 형성하라 하였다.

한편 21세기에 지향하는 인간됨을 정의하고자 할 때, 1980년 7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글귀가 눈에 띈다(happyceo@hunet.co.kr). 미각, 패션, 장식, 오락, 교육, 교통, 심리학, 로맨스, 요리, 디자인, 문학, 의약, 공예, 미술, 원예, 경제, 정치, 이웃과의 관계, 소아의학, 노인의학, 접대, 관리, 구매, 법률, 회계, 종교, 그리고 경영 등, 이 전부를 해치울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주부”라고 주장한 글귀이다. 이 글귀에 나타난 주부의 특별한 역량을 앞에 두고서, 유아기에 모든 지식의 기초를 형성하려고 주문한 400년 전 코메니우스의 언급을 떠올림은 무리일까? 17세기 코메니우스로부터 20세기 아동권리선언을 거쳐 오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유아를 위한 교육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까닭이다.

21세기 인간됨에 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미래형 인재로서

회자되는 10 가지 유형(naver.com)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는 분위기를 즐겁게 할 줄 알며(돌고래형),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을 잘하고(청개구리형),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고 행복을 느낄 줄 알며(열정형),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긍정형), 남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창의형),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실천할 용기를 지니며(실천형),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고(문제해결형), IQ보다 EQ가 뛰어나며(감성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줄 알고(도전형), 그리고 도덕 수준이 높은(투명형) 사람이 미래 사회의 인재라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먼저 인간성과 인격을 갖춘 즉 ‘사람 됨됨이’를 갖춘 존경할 만하고 아름다운 모범적인 ‘훌륭한 사람’을 목표로 삼자는 권고도 있다(홍강의, 2007).

과연 2007년 현재 보육시설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보육시설이라면 0세에서 6세에 이르는 영유아들이 지금 현재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물론 21세기 미래 한국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은 오늘의 특별활동과 관련한 논의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 2만 9천여 보육기관에서 99만에 가까운 0세 이상 5세 이하의 영유아가 보호받고 양육되며 교육받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특별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는 지부터 재차 철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고려는 결코 재정적 순익 계산에서가 아닌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이라는 특별활동의 기본 목적에서 출발하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담당강사의 인간관(사람됨의 정의), 인생관(삶의 철학), 직업관(일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봉사정신(세상을 향한 기여)에 근거한 특별활동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종국적으로 우리 유아들의, 유아들에 의한, 유아들을 위한 특별활동을 지향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토론 3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 보고」에 대한 토론

이 기 속 (이화어린이연구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드높다. 우리나라는 전인발달이라는 목표 아래 열린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과 교육만큼은 전인발달 및 창의성 발달을 위한 열린 교육을 실행할 것으로 믿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초등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사교육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러한 현상은 점차 그 연령이 하향화 되어 상급학교에 못 지 않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목적은 영유아를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교육의 목적은 조기교육의 열풍 속에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육이 사회적 성공이나 지위 또는 계층 상승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져 왔고, 조기교육을 통해 생의 초기부터 자녀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은 사회계층 및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은 각종 특기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을 유아교육기관에 들여와서 특별활동으로 강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교육 풍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주입식,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과 맞물려 영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개개인의 잠재 능력이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성인사회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일부 분야의 특기나 학문적 기초기술을 보육현장에서도 익히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기 특별활동이란 발제 원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그 개념 정의조차 확실하지 않고 있으며 흔히 조기·특기교육, 시간 연장제 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활동, 방과 후 활동 등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특별활동이란 교과학습 이외의 여러 가지 자치활동대지는 봉

사, 행사활동을 뜻함으로써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위주의 특별활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동안 발달적으로,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조기·특기교육은 영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장애를 일으키며, 조화로운 전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조기·특기교육의 열풍은 영유아기를 왜곡하고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유아 보육/교육을 하기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해왔다(우남희 외, 2005; 이기숙 외, 2001).

더구나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을 수강한 유아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학습지 시장 규모도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1). 교육대상의 연령도 만 1, 2세 영아들로 하향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보고」의 발제 연구를 접하고 토론자가 우려하는 점은 특별활동에 대한 과거의 연구에서 보다 다음과 같은 점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 (2) 과거에 비해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다.(0세부터 시작됨)
- (3) 시간대가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4) 부모는 물론 원장과 교사들도 특별활동이 원아모집을 위한 방편이 아닌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5)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이 보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 (6) 보육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며 국공립, 민간등 유형에 상관 없이 실시되고 있다.
- (7) 과거에 비해 실시되는 가지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각종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일본과 중국과의 비교연구도 수행한바 있다.(이기숙 외, 2001; 이기숙외 2002, 이기숙외 2004, 이기숙외,2006). 토론을 위해 그동안의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특히 전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2600명과 사립유

치원 교사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조기특기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1명을 대상으로 하루일과를 추적 관찰하고 학부모, 유아교사, 원장 인터뷰와 초등학교 교사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1) 전체적 경향

- ① 연구대상 유아교육기관중 상당수(88%)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3-4 가지 이상을 실시하는 곳이 58.3%에 달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 실시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 가지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②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영어, 미술, 체육등이었다. 특별활동은 주로 정규 수업시간에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외부강사가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경우 교사가 보조자로 참여하거나 수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아지도에서 일관성과 연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은 주로 대집단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 ③ 교사들은 특별활동을 담당자는 반드시 유아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지도자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원에서 특별활동을 정규 수업시간에 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되며, 유아들이 받고 있는 특별활동의 가지 수가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특별활동의 문제점

특별활동의 문제점으로 교사들이 지적한 것은 보육/교육 프로그램 의 질 저하, 영유아의 부담 가중 및 또래관계 단절, 담임교사의 부담 가중 및 사기 저하, 특별활동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 ①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
- ② 유아의 부담 가중 및 또래관계 단절
- ③ 담임교사의 부담 가중 및 사기 저하
- ④ 특별활동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점으로 특별 활동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다. 특별활동담당자들은 책임감이 부족하여 수업시간에 늦거나 결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문 강사라고는 하지만 유아교육전공자가 아니어서 언행이나 수업진행 면에서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문자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등 가시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특별활동이 성행되고 있어 영유아 보육기관이 각종 유사 학원과 같은 체제로 왜곡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유아기관이 유사 학원등과 구별이 어려워지며 점차 그 정체성이 모호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의 학원이 버젓이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인 보육과 교육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어느 유치원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난 30년간 올바른 영유아교육을 위해 힘써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여가면서 특기교육 해주기를 원하고, 오후에도 짝 찬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과학나라, 색종이 접기, 영어 방문교사, 한문, 숫자와 한글지도, 영재교육, 학습지 등을 시키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 문을 닫게 될는지. ... ”

영유아기 자녀에게 조기·특기 교육의 필요성 및 시기, 비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빠르다고 인식했으며, 부모들은 조기·특기 교육의 종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기·특기 교육의 비용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⑤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유아 교육과정

부모들은 또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보다 각종 특별활동들로 하루 일과를 채우며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어떤 TV프로그램에서 ‘나는 외국인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고서 놀랐다. 나도 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마음이 착잡하다. 나도 내 아이에게 조국의 자긍심은 뒷전이고 영어만이 고유한 어떤 민족의 언어인 마냥 왜곡되어 가르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 우리 것은 뒷전이고 너무 외래어 외국어만을 강조하지나 않았는지.”

(3) 부모들이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이유

부모들은 그 이유로 주위에서 많이 시키므로 불안하기 때문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조기·특기교육을 통해 다 방면의 기초 능력과 소양을 닦아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4) 부모들의 요구

부모들은 유아들이 전인발달을 이루며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실현되면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학원과는 뚜렷하게 차별화 될 것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정규 보육 프로그램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천할 것이고 이를지도, 감독, 평가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이 파행적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부모들은 생각하였다.

(5)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의견

여러 가지 특기 교육은 역효과를 가져온다. 여러 가지를 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산만하다. 특기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수업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다. 또래를 약 올리고 따돌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다. 미리 배운 아이들은 지루하니까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다. 공부하는 것 자체를 지겨워한다. 엄마의 열의가 높을수록 아이는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서불안, 의욕이 없어 보인다. 집에서 “화장실 가도 돼요?”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사립 초등학교 교사)

“1학년 초 교실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어린이들의 대답이 “나 알아요, 그거”, “다 배웠는데...”, “아, 너무 쉬워!” 등이다. 모르는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며, 교사도 맥이 빠진다.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답을 알면 무조건 잘 아는 것인 줄 안다. 수학이 심한 편이다. 답이 나오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예를 들어 ‘13-8=’이라는 문제를 주면 금방 ‘5’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5가 되었지?’라고 물으면, 그 물음에는 관심이 없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중략)”

일본은 문부성 생애 학습국의 위촉을 받아 일본 국립 교육정책 연구소에서 「생애 학습 활동의 촉진에 관한 연구 개발」의 일환으로 유아조기교육의 실태에 대한 「조기교육의 실태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위촉기간 1998~2000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바 있다. 이 연구는 현재 문부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한국, 일본, 중국, 호주간의 비교연구로 발전되고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일본 부모들에게 유치원, 보육소에서 어떤 종류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여러 가지 일 하기’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마음껏 놀기’, ‘올바르게 말하기’,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장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내용은 ‘사립소학교의 입시를 위해 준비하기’로 95% 이상의 부모들이 유

치원이나 보육소에서 가르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일본 부모들도 우리와 같이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유치원이나 보육소에서는 주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나 인성발달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초등 교육을 위한 준비나 학문적인 기술, 특히 형식적인 글자나 수 교육 등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유아들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유아들이 조기·특기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더 늦으며, 그 비율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특기 교육의 내용도 예·체능 계통으로써 우리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토론자가 2006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국 중국 일본 영유아들의 일상생활연구에서 유아들의 조기/특기활동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유아들 중 한국은 72.6%, 일본은 61.7%, 중국은 64.6%가 정규교육 이외의 조기/특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특기 활동유형으로 세 국가 모두 예체능 관련 활동과 영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학습지를 하는 비율이 일본,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서 학습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이후 초등학교 학습과 관련된 기초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날마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의 문제해결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발제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영유아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입장과 보육현장의 차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과 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차이 등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이러한 특별활동은 없어지기 보다는 점차 확대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논의 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 특별활동 자체만의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들이 특별활동에 의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요인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재정적인 문제, 보육과정의 운영문제, 연령별 차별화된 보육프로그램의 문제,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문제, 충분한 인적 자원의 여부, 교사 자질의 문제, 물리적 환경의 문제등등과 연결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그 당위성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 시점에서 보육시설의 특별활동들이 영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부모와 유아교사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각종 조기 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될 때 현장과 부모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영유아기의 특별활동이 자녀의 재능 및 소질개발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더 세분화 되고 심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없이 막연한 기대감이 특별활동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학적으로 치닫는 조기교육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시키고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보육체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특별활동은 이제 비교적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은 국공립을 포함하여, 민간이나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모두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육시설의 질적 요소에서 통합적 보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과거와 달리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연구에서 학부모의 요구나 원아모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설 운영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특별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정착화 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제제도 없다는 것은 보육시설의 질적 프로그램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 영유아교육과 보육과 관계가 없는 학과에서 이러한 강사들을 배출해 내는 여러 가지 자격증 내지는 학과들이 생기고 있음도 특별활동 강사수급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무용과, 체육과, 국문과, 영문과 등등에서 각각 발레, 유아레크리에이션지도자, 동화 구연 교사, 유아 영어 교사 등의 명칭으로 강사들이 나오고 있다.

다섯째, 특별활동을 어쩔 수 없이 실시해야 한다면 영유아의 발달을 도와 줄 수 있는 보조 활동이 되어야 하며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본 연구 결과는 그 연령이 0세 까지도 하향화 되어 한글, 외국어등 받

달단계에 맞지 않는 활동들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의 실시 시간 역시 오전 보육시간 중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은 또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적어도 오전시간에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통합적인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특별(특기)활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좀 더 확실해 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어디까지 수용 가능할 것인지가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이란 초중등교육의 특별활동과는 그 개념이 다른 양상이며 사교육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어느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특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조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색 도형, 도미노, 예절, 주말농장, 시찌다, 프로젝트, 발도로프, 단전호흡 등등이 과연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학부모들에게 창의적이고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조기교육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폐해들 즉, 유아의 발달 장애, 교육의 비효율성, 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등의 문제점들을 홍보하여 보육시설이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앞으로 규제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특별활동비의 수납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서울시 2007년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원하지 않는 유아를 위해서 강요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하고 있으나 모든 원아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내 아이만 빠지게 할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이번연구에서는 특별활동비에 교재비까지 따로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비용의 수납은 결국 특별활동을 부추키며 결국 사교육의 형태를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쉽다.

아홉째,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육을 하기 위하여 정부와 연계된 평가 인증제를 더욱 강화 확대하여 기관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별활동의 심각성은 이제까지 어느 분야, 어느 시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기 적절하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다만 앞으로 본 연구가 전화 조

사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한계점과 20인 이하의 시설이 많았던 점, 비교적 어린연령이 많았던 점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보육시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특별활동이 더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는 유아 조기·특기교육으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유아교육정책과제 2001-24. 교육부.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2).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한국아동학회지 별책 제 23권 제 4호, 137-152
- 이기숙, 박은혜, 김희진, 김현정(2004). 우리나라 유아의 하루일과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대한연구. 유아교육연구 제 24권 제3호, 163-188.
-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제 25권 제1호. 5-24.
- 이기숙, 정미라, 김현정(2006). 한국, 중국, 일본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 12권 제 5호(특집호), 81-98.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 · 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한국 유아교육 학회. 제 22권 제 3호, 153-171
- 통계청(2001). 교육사회부문조사.

토론 4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¹⁾

황 윤 옥(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하나, “강남엄마 따라잡기”에 대한 공분 혹은 공감

“강남엄마 따라잡기”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화제이다. 강남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엄마들의 황당한 극성을 풍자하겠다는 것이 의도인듯 하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드라마를 보고 누구나 혀를 차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강남에서 아이를 키우면 어찌되었든 실력은 좋아지는 것은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각기 생각도 입장도 다르다. 옹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다.

“특별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이 보고서에서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기본적인 유치원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통 사교육 혹은 특기교육이라고 말해지는 활동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이 특별활동에 대하여,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아이들은 기본활동만으로도 충분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인가? 아니면 지나치지 않다면 각자의 선택에 따라 해도 좋다가? 또한 보육시설이 이러한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으므로 양성화하는 것이 낫다인가?

연구보고서를 보면서 연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결과를 해독해내거나 전망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 예를 들어 다음 질문들 중 답을 고르라면?

- (1) 영유아의 특별활동, 즉 특기적성교육이나 과외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1) 미국 알바노 프리스쿨에서 30여년간 교사로 생활 해온 크리스 메르코 글리아노가 쓴 책의 제목이다. 미국 공교육의 문제점과 진정한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 (2) 영유아기의 특별활동 자체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보육 시설에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3)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좋다.
- (4) 특별활동은 보육시설의 활동을 다양화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 (5)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므로 확대해야 한다.

둘, 바람직하지 않지만 필요하다(?)

특별활동에 대한 논의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를 듣기가 쉬운 주제이다. 보고서에서도 기존의 논의들과 실태조사의 현상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의 논의들을 보면 보육시설의 기관장들이나 교사들은 특별활동은 유아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조기발견하려는 의미에서 진행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 전문가들 역시 특별활동의 내용이 유아들의 발달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원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는 특별활동을 하는 이유가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이고,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활동의 내용을 보면 외국어(영어가 가장 많다)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외국어가 영유아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는 셈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의 현실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내용중에 납득이 안되는 면을 거칠게 부각시켜 보았다)

영유아기의 특별활동에서 외국어가, 특히 영어가 이토록 환대받는 이유가 과연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고민한 결과일까? “바람직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말은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진행여부와 활동의 내용이 보육 이외의 변수에 의해 압박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셋, 달콤 살벌한 유혹, 특별활동

특별활동은, 말하자면 간식이다. 밥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특별활동의 유무가 보육시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객이 바뀐 셈이다. 과자가 더 달콤하고 맛이 강렬하듯 특별활동이 더 재미있고 효과도 눈에 보인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

나 과자가 달콤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유혹이듯, 특별활동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의 활동을 다양화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의 기본활동을 해치는 살벌한 유혹이다.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이 해야 할 제 몫의 활동이 있다.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을 아무리 풍부하게 하고 잘 한들 그것이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누려야 할 생활이나 권리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아니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을 더 잘하게 되면 이미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것이다. 특별활동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대처하는가는 보육시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살벌한 유혹이다.

넷, 과유불급(過猶不及) :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다. 사실 특별활동이 아이들의 발달이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나 성과는 그다지 증명된 바가 없다. 물론 무조건 나쁘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실은 “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지니까?”라기 보다는 “안하면 우리 아이가 뒤쳐질까봐”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 혹은 불안감이라는 것이 묘한 구석이 있어서, 계속 커지는 성질이 있다. 처음에는 하나 정도로 시작하는 특별활동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면서 늘어나고, 부모입장에서도 보육시설 입장에서도 계속 과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특별활동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선을 넘게된다. 특별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활동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과한 자극이 되는 것이다. 과한 자극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여도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특별활동에 대한 논의는 보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넘지 말아야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러해야한다.

다섯, 줄탁동시 (茁啄同時) :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병아리가 나온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고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인 셈이다. 오늘 공청회가 특별활동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에 대한 토론이라고 해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생각이 난 말이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계속 확대되는 특별활동에 대한 책임이나 대안이 부모에게만 혹은 보육시설에게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가

2) 좋아진다는 의미도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말이지는 하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 보육시설이 원아모집의 방편으로 삼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만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부모의 각성과 보육시설의 인식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교육열풍, 특히 입시와 영어에 대한 광풍과 이어진다. 보육시설이 본래의 보육의 몫을 찾지 못하고 그 광적인 열기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게 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아이들이다. 영유아기는 그 다음 성장을 위한 준비기이기도하지만 그 나이를 누릴 권리가 더 큰 시기이다.